제한된 여성의 위치와 전복적 스토리텔링을 통한 치유 효과

- 이디쓰 워튼의 「뒤늦은 연인들」, 「나머지 둘」을 중심으로 -*

손정희** · 이현주***

〈차 례〉

1. 들어가는 말: 워튼의 글쓰기와 치유
2. 여성을 구속하는 사회 관습과 결혼
3. 관습에 도전하는 여성들
4. 억압된 여성의 위치 전복
5. 나가는 말: 문학의 치유효과

【국문초록】

이디쓰 워튼은 작품을 통하여 당시 사회적으로 제한되었던 여성의 위치를 탐구하고 여성의 삶에 내재된 문제들에 대한 해결점을 제시하고자 시도한다. 본 논문은 그녀의 단편 소설인 「나머지 둘」과 「뒤늦은 연인들」의 여성들이 현실을 극복하려는 모습을 통해 워튼이 결혼제도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뒤늦은 연인들」에서 리디아는 이혼한 여성에 대한 사회적

* 이 논문은 2014년도 중앙대학교 연구장학기금 지원에 의한 것임.
** 중앙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제1저자)
*** 중앙대학교 영어영문학과 박사과정(교신저자)

편견을 극복하고자 과감하게 새로운 남성과의 도피를 시도한다. 「나머지 둘」에서 엘리스는 두 번의 이혼을 겪고 세 번째 결혼을 하지만 어떠한 패배나 좌절감도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새로운 환경을 조정하면서 결혼생활에서의 위치를 효과적으로 활용한다. 워튼은 전복적인 스토리텔링을 통해 여성을 억압하는 결혼제도를 비판한다. 이러한 워튼의 글쓰기는 여성을 억압하는 사회관습과 불행했던 자신의 결혼생활에 대한 아픈 기억을 표출해내는 자기 치유적인 행위일 뿐 아니라, 독자에게도 카타르시스 및 문제해결능력을 제공할 수 있는 치유의 가능성을 열어준다.

주제어: 이디쓰 워튼, 결혼, 이혼. 사회적 관습, 전복적 스토리텔링, 치유

1. 들어가는 말: 워튼의 글쓰기와 치유

이디쓰 워튼(Edith Wharton)은 작가로서 일생동안 여성에 대한 사회적 관습의 억압을 비판했다. 그녀가 살았던 19세기 말 구 뉴욕(Old New York)은 빅토리아 시대적 윤리관이 만연해 있던 공간이다. 특히 상류층의 삶을 살았던 워튼은 어린 시절부터 훌륭한 소녀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감정을 억제해야 한다고 교육받았다. 숙녀다운 행동이라는 명목 아래 "본능에 대한 억압 즉 자기부정"[1]을 강요받았던 것이다. 이러한 억압적인 훈육에 대한 반항으로 워튼은 글을 쓰기 위해 책 속으로 빠져들었다. 신시아 그리핀 울프(Cynthia Griffin Wolff)는 워튼이 평생 동안 단어들을 사랑하게

1) Wolff, Cynthia Griffin. A Feast of Words: The Triumph of Edith Wharton, 2nd ed, Reading, Mass: Merloyd Lawrence Book, 1995, p. 37.

된 연유가 "어린 시절의 감정적인 빈곤에서 비롯된 것"[2]이라고 주장한다. 워튼에게서 영원히 침묵하며 살아야 할 가능성보다 더 끔찍한 것은 없었고, 그러한 삶으로부터의 탈출구가 바로 단어들을 통한 '이야기하기'였던 것이다.[3] 워튼은 평생 동안 침묵을 거부하고 대신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을 통해서 여성에게 가해지는 불합리한 사회적 인습을 폭로하여 그녀 자신의 억눌린 내적 감정을 표출하는 일종의 '전복적 스토리텔링'으로서의 저작활동을 했다.[4] 이러한 점에서 워튼의 글쓰기는 그녀가 말할 수 없었던 억눌린 감정을 언어로써 표출하는 자기 치유적인 행위였으며, 워튼은 글쓰기를 통해서 일종의 사회비평가이자 억눌린 모든 여성들의 목소리를 대신하는 스토리텔러(storyteller)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워튼은 25권의 소설, 86편의 단편, 3권의 시집과 그밖에도 기행문, 실내장식 안내서, 자서전, 논문, 서평 등 다양한 장르를 망라하는 많은 양의 저서를 출판했다.[5] 특히 초기 걸작으로 평가되는 「나머지 둘」("The Other Two"), 「뒤늦은 연인들」("Souls Belated"), 「뮤즈의 비극」("The Muse's Tragedy")으로부터, 중년기의 주옥같은 작품인 「그 후에」("Afterward"), 「그 눈」("The Eyes")에 이어,

---

2) Ibid, p. 27.

3) Ibid, pp. 25-26.

4) 현재 스토리텔링은 광의의 의미로 글쓰기를 포함한 다양한 매체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통용된다. 이민용에 따르면, 스토리텔링은 "스토리를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단순히 말로써 텔링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텔링의 의미를 좀 더 넓게 잡아서 문자, 소리, 만화, 애니메이션, 방송, 영화, 컴퓨터게임 등의 매체를 통해 텔링하는 것"(이민용, 「이야기와 스토리텔링의 치유적 기능」, 한국독일언어문학회, 『독일언어문학』 43, 2009, p. 140)을 의미한다. 이 글에서는 워튼의 글쓰기가 억압당한 목소리를 내는 일종의 스토리텔링 과정이라 본다. 워튼에게서 글쓰기는 관습에 대한 도전과 함께 치유가 발생하는 순간이 되기에 '전복적 스토리텔링'이 된다고 제안하고자 한다.

5) Singley, Carol J. "Introduction." In Carol J. Singley (Ed.) *A Historical Guide to Edith Wharton,* Oxford: Oxford UP, 2003, p. 7.

말년에 완성한 「석류 씨앗」("Pomegranate Seed"), 「로마 열병」("Roman Fever"), 그리고 「위령」("All Souls")에 이르기까지, 특정한 시기가 아니라 그녀의 생애 전반에 걸쳐서 훌륭한 단편들을 지속적으로 출판했다.[6] 워튼은 단편 소설 대부분을 당대의 인기 잡지에 출판하였으며, 이들 단편은 잡지들이 여성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요소들인, "가족, 가정, 결혼 충실성"(the family, the home, and marital fidelity)과 같은 가치에 대한 도전을 제시하고 있다.[7] 인습적인 사회와 갈등하는 여성이라는 주제는 그녀의 최초 베스트셀러 작품인 「환락의 집」(The House of Mirth)과 퓰리처상의 영예를 안겨준 「순수의 시대」(The Age of Innocence)를 비롯해서 중요 장편소설들에서도 일관되는 관심사이다. 본 논문에서 다룰 「나머지 둘」(1904)과 「뒤늦은 연인들」(1899)은 워튼의 단편 선집에는 거의 빠짐없이 수록되고 있는 대표 걸작이면서, 또한 작가의 지속적인 관심사의 연속선상에 있는 작품이다. 워튼은 이 작품들에서 제한된 영역에서 관습적인 예절과 구속에 고통 받았던 구 뉴욕에서의 생활상과 남편과의 불화로 평탄하지 않았던 결혼생활의 아픈 기억들을 풀어냄과 동시에 그 기억의 배경에 있었던 여성에게 불합리한 사회제도 및 관습적인 편견들에 대해 끊임없는 의문을 제기한다. 따라서 "여성이 결혼 제도 내에서 물리적으로 어디에 위

---

6) Colquitt, Clare. "Bibliographic Essay: Visions and Revisions of Wharton." In Carol J. Singley (Ed.) *A Historical Guide to Edith Wharton,* New York: Oxford UP, 2003, p. 252.

7) 사라 화이트헤드(Sarah Whitehead)는 86편이라 말했던 캐롤 싱글리(Carol J. Singley)와 달리 전체 단편 수를 87편으로 언급하면서, 그 중 78편이 당대 유행하던 잡지에 출판되었던 점을 지적한다. 비록 이 글에서 다루는 단편들을 분석하고 있지는 않지만, 화이트헤드는 단편들이 시의적인 주제를 다루면서도 보수적인 대중 잡지의 가치를 전복하는 측면이 있음을 주장한다. (Whitehead, Sarah. "Breaking the Frame: How Edith Wharton's Short Stories Subvert Their Magazine Context", *European Journal of American Culture* 27-1, 2008, p. 53).

치해 있는지—즉, 그녀가 벗어나고자 하는 (구속의) 장소이든지, 혹은 공인된 이혼녀로서 또는 간통을 저지른 사회적 이단아로서 존재하는 대안적 공간이든지—가 당사자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8] 관습적 상황을 여성 개인의 선택을 통해 새롭게 조명하고자 한다. 특히 그녀는 "남성에게 적용되지 않는 결혼관습의 행동규범이 어떻게 여성들을 구속하고 있는지"[9]에 주목하고, 역으로 「나머지 둘」에서 헤스켓 엘리스(Alice Haskett)처럼 거리낌 없이 '이혼을 선택'하거나, 「뒤늦은 연인들」의 리디아(Lydia)처럼 '결혼을 거부'하는 전복적인 스토리를 탄생시킨다. 이를 통해 워튼은 개인적인 자유를 열망하며 관습을 거부하지만 높은 현실의 벽 앞에서 끝내 관습의 틀을 극복하지 못하는 여성들의 모습을 통해 여성들이 처한 현실의 문제들을 고발한다.

소설은 워튼이 말하고 싶은 모든 문제를 털어놓고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였다. "과거에 경험한 일들은 하나의 이야기나 몸의 기억으로 우리의 기억 공간에 남아 있다. 치유한다는 것은 바로 이 기억들을 재구조화하고 꿰매는 일이다"[10]라는 주장에 근거해 볼 때, 워튼 자신에게도 글쓰기는 여성으로서 경험했던 기억을 꺼내어 그 아픔을 체현하고 꿰맬 수 있는 치유의 한 방식이었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독자는 워튼의 살아있는 경험이 녹아 있는 하나의 소우주를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공감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근원적인 문제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될 것이다. 특히 당시 여성들이 자유를 억압받는 상황을 전복시키는

---

8) Banta, Martha. "Wharton's Women: In Fashion, In History, Out of Time." In Carol J. Singley (Ed.) *A Historical Guide to Edith Wharton*, New York: Oxford UP, 2003, p. 66.

9) Rossetti, Gina M. "Old Entanglements: Spectral Spouses in Edith Wharton's "The Other Two" and "Pomegranate Seed"", *Journal of the Short Story in English* 58, 2012, p. 2.

10) 변학수 지음, 『문학치료』, 학지사, 2007, p. 22.

워튼의 스토리는 그녀 자신을 비롯하여 독자들에게 통쾌한 카타르시스와 수정되어야 할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의식과 힘을 제공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워튼의 작품은 사회와 개인의 문제, 특히 사회적 약자로 위치하는 여성의 삶에 주목하고 그 원인을 비판함과 동시에 고통 받는 여성 개인의 내면까지 치유하는 효과를 줄 수 있다.

이 글에서 의미하는 '치유'(healing)란 병리현상의 임상적 치료가 아니라, 문학작품을 통하여 현실을 인식하고 극복할 수 있는 깨달음을 얻음으로써 문제 상황을 재인식하고 미래의 방향을 재설정할 수 있는 통찰력을 얻게 한다는 의미에서 사용할 것이다. 즉 치유의 본질은 개인의 자아인식, 자아성찰을 유발하여 현실의 문제를 재인식하고 극복하며 나아가 현실에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는 과정이라 하겠다. 예로부터 문학은 기능상 인간의 영혼과 심리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인식되었다. "고대 테베의 도서관 정문에는 "영혼을 치유하는 곳"이라고 걸려있었고, 한 스위스의 중세 대수도원 도서관에도 "영혼을 위한 약상자"란 의미의 글이 새겨져 있었다고 한다".[11] "문학치료에서도 치료란 말의 원래 의미는 '보살핀다, 봉사한다, 동행한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다".[12] 이러한 문학의 기능은 독자에게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성찰하며 개인적으로 받은 인상을 다시 자신의 내면과 통합하는 과정"[13]을 제공한다. 이 과정에서 독자는 새로운 방향의 미래를 설정할 수 있는 치유의 단계에 도달하게 된다. 한마디로 문학을 통한 치유는 독자에게 "사고와 상상력을 자극함으로써 그들이 자신 밖으로 나와 세상에 대한

11) 이봉희, 「글쓰기 치료: 소설 고쳐 쓰기를 통한 자아성찰 사례」, 한국국어교육학회, 『새국어교육』 80, 2008, pp. 359-360.

12) 변학수 지음, 앞의 책, p. 13.

13) Hynes, Arleen McCarty and Hynes-Berry, Mary. *Biblio/Poetry Therapy: The Interactive Process: A Handbook*, St. Cloud, MN: North Star P of St. Cloud, 1994, p. 31.

새로운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14]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그러나 치유적인 관점에서 "고통의 사회적 원인에 대한 냉정한 천착 없이 고통의 형상과 내면의 치유만을 조명하는 힐링 담론은 공허하고 기만적"[15]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치유는 문제시 되는 현상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의식 또한 포함되어야 한다. 사실 문학은 독자 개개인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 자아발견을 일깨우며 궁극적으로 더 나은 삶을 위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기능 외에, 한 시대의 자화상을 포착하고 비판하며 탐구하는 영역임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대사회는 "사회의 체계가 개인에게 안정감을 주지 못하고 누구도 위험과 위협을 책임지지 않게 되는 "조직화된 무책임성'이 만연하고 있는 위험시대"[16]이다. 즉 모든 것을 개인의 선택에 맡기고 그 선택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기보다는 자신이 선택한 삶의 위험한 모든 결과를 혼자서 책임져야 하는 불안하고 위험한 사회라는 것이다. 문학 치유는 개인의 고통에 주목하고 그 원인에 대해 날카롭게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위험시대를 극복하는 경로"[17]를 제안할 수 있다. 인류 역사의 모순점들에 대한 통찰과 그에 따른 인간 삶에 대한 논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로 문학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은 워튼의 단편 소설인 「나머지 둘」과 「뒤늦은 연인들」을 중심으로 당시 억압적인 관습에 의해 규정된 사회주체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여성의 삶을 살펴보고, 그 관습적인 틀을 전복시키는 여성들의 시도를 치유적인 관점에서 분석하

14) Idib, p. 17.
15) 김유동, 「인문학, 치유, 그리고 우울」,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과학연구』 39, 2013, p. 441.
16) 신동일, 손정희, 「영어영문학 교육과정의 확장을 위한 스토리텔링 연구분야의 유의미성 탐구」, 대한영어영문학회, 『영어영문학연구』 40-2, 2014, p. 163.
17) 같은 논문, p. 177.

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다음 장에서는 여성에게 가해지는 관습의 억압을 결혼과 이혼의 양상을 통해서 살펴본다. 3장에서는 그 관습에 도전하는 여성들이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지만, 그러한 구도는 사회와 관습을 비판하는 워튼의 장치라는 것을 고찰하겠다. 4장에서는 좀 더 나아가 사회가 규정한 현실의 위치에서 뛰어난 적응력을 보이며, 오히려 그 결정된 위치를 전복시켜버리는 여성의 모습을 통해 워튼이 제시하는 전복적인 스토리텔링의 치유 및 문제해결 방식을 논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전복적 스토리에서 작가와 독자가 얻을 수 있는 치유적인 효과를 조망하고자 한다.

2. 여성을 구속하는 사회 관습과 결혼

19세기 빅토리아 시대의 사회는 여성들에게 신앙심, 순결, 순종, 가정을 중요시하는 "진정한 여성성"(True Womanhood)을 내세우며 관습적인 사회질서에 순응하도록 암묵적인 억압을 행사하였다. "19세기를 지배한 진정한 여성성에 따르면 여성은 경건함(piety), 순결(purity), 복종(submission), 가정성(domesticity)의 네 가지 정신적인 미덕을 따르는 집안의 천사의 역할을 다할 때 이상적인 여성이었다".[18] 따라서 '가정의 천사'라는 역할 외에, 여성에게 주어진 선택의 기회는 상당히 제한되어 있었고, 여성의 경제적 생존 수단은 사회적인 성공보다는 역시 결혼이었다. 사라 에번스(Sara M. Evans)는 이러한 사회 분위기에 대해, "남성의 정체성과 경제적 안정성이 주로 직업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었던 반면, 여성들은 여성의 경제적 안정성, 감정적 충만감, 사회적 지위, 이 모든 것이

18) 손정희, 「플래퍼와 1920년대 미국 문화의 여성 이미지: 피츠제럴드 중심으로」, 한국아메리카학회, 『미국학논집』 41-2, 2009, p. 139.

성공적인 결혼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만약 결혼에 실패하면 여성은 출산 능력이 '말라 비틀어 진 늙은 하녀'가 될 각오를 해야만 한다"[19]고 꼬집는다. 미셸 바렛(Michelle Barrett) 역시 여성은 남성에게 위안을 주는 존재로서 "불가피하게 여성은 정서의 영역으로 강등되며, 남성의 장식품이라는 친숙한 억압을 벗어날 수 없다"[20]고 지적한다. 이로 인해 여성에게는 사회적인 지위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며, 남성은 주체(the subject), 여성은 타자(the other)로 인식되었다.

「나머지 둘」의 엘리스는 여성이 남성에게 위안을 주는 존재로서 공적인 영역보다는 가정 내의 정서적인 역할로 강등된 예이다. 이는 아내를 바라보는 웨이손(Waythorn)의 시선에서 쉽게 발견된다. 엘리스는 두 번의 이혼을 거친 후 이제 웨이손과 세 번째 결혼을 한 여성이다. 신혼여행을 떠났던 두 사람은 엘리스가 그녀의 첫 번째 남편 헤스킷(Haskett)과 사이에서 낳은 딸인 릴리(Lily Haskett)가 장티푸스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돌아온다. 웨이손은 딸을 살피러 위층에 올라가 있는 아내를 기다리며, 어머니로서 딸에 대해 갖는 그녀의 애정과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녀의 평정심을 매력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엘리스의 특징은 웨이손이 그녀와 결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 웨이손에게서 아내란 경제활동을 하는 남편을 위해 모성의 자애로움을 갖춰야 하고, 남편을 기쁘게 하는 정서적인 안정감을 겸비해야 한다는 "진정한 여성성"의 관습적인 인식을 발견할 수 있다.

이에 맞게 정신적으로 완벽하게 균형 잡힌 엘리스의 차분함은 웨이손의 예민한 기질에 안정감을 주고 균형을 잡아주며 유쾌함을 제공한다. 그러나 스콧 에머트(Scott Emmert)는 이 소설이 웨이손

19) 사라 에번스 지음, 조지형 옮김, 『자유를 위한 희생』,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8, p. 281.
20) 미셸 바렛 지음, 하수정 옮김, 『다시 보는 여성학』, 간디서원, 2005, p. 275.

의 시점에서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내에 대한 웨이손의 이해는 정작 "그의 시선의 한계"(limitations of his vision)[21]를 드러낼 뿐이라고 주장한다. 엘리스가 웨이손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외관상 침착"[22]을 유지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메리 베쓰 인벌소(Mary Beth Inverso)는 남편을 기쁘게 하고 그의 비위를 능숙하게 맞추는 엘리스의 모습을 "카멜레온"[23]에 비유하기도 한다. 사실 엘리스가 그녀의 기질과 상관없이 의식적으로 고요하고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카멜레온처럼 남편의 기대와 현실의 상황에 따라 모든 것을 조절하고 적응해 낼 수 있는 '능력'이라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그러나 엘리스의 이 노련한 능력이 현실에 적응하기 위한 의식적인 행동이었다면, 그것은 바로 여성의 침묵과 희생이 평화로운 가정을 위한 '훌륭한' 자질이라고 규정짓는 관습의 영향임을 간과할 수 없다. 이혼과 결혼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던 엘리스의 입장에서 순종적인 여성상을 기대하는 남편의 비위를 맞추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인 것이다. 따라서 여성이 결혼에 실패할 경우 겪게 될 생존 위협은 엘리스로 하여금 남편을 바꿔가며 그 현실에 따라 카멜레온처럼 변화하며 적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다.

남편의 비위를 맞추는 엘리스의 노련함이 관습의 틀 안에 위치한 생존방식이었다면, 「뒤늦은 연인들」에서 리디아는 또 다른 방식으로 사회 관습의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리디아는 관습의 세계를 상징하는 그녀의 남편인 틸롯슨(Tillotson)을 떠나 사랑하는 가넷(Gannett)과 함께 밀회의 여행을 떠난다. 파멜라 나이츠(Pamela

---

21) Emmert, Scott. "Drawing-Room Naturalism in Edith Wharton's Early Short Stories", *Journal of the Short Story in English* 39, 2002, p. 4.

22) Ibid, p. 5.

23) Inverso, Mary Beth. "Performing Women: Semiotic Promiscuity in "The Other Two"", *Edith Wharton Review* 10:1, 1993, p. 3.

Knights)는 리디아의 남편의 세계인 틸롯슨가는 똑같은 시간에 매일 똑같은 일을 하는 밀실에 갇힌 듯한 워튼의 뉴욕생활을 그리고 있다고 말한다.[24] 리디아가 경험한 뉴욕 상류층의 생활상은 다음과 같이 표현되고 있다.

> 신중한 인간들은 평온한 상태를 좋아하게 마련이다. 그들에게는 기대되지 않는 일을 저지르는 것은 빗속에 외출하는 것과 진배없는 어리석은 짓이다. 부유하다는 것이 유리한 점은 예상 밖의 일에 내놓여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항상 상식과 엄숙한 태도로 매일 매시간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다 … 이를테면 비 오는 날에는 고무장화를 신을 것, 식사시간을 정확히 할 것, 도둑이나 전염병에 대해 철저히 대비할 것 … 그 집안에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은 똑같은 좁은 편견의 틀 속에서 살고 있었다. 이들의 생활이란, 여자들은 식사를 한 후에 교사들이 요구하는 교육비를 비교하다가도 프랑스풍의 옷이 유행이지만 결국 워드 디자인의 옷을 입는 게 경제적이라고 결론 내린다든가, 남자들은 담배를 태우면서 시 행정의 부패를 한탄하고 그러다가도 개혁을 시작할 사람은 개인적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사람이어야 한다고 결론 내리는 식이었다.
>
> Prudent people liked an even temperature; and to do anything unexpected was as foolish as going out in the rain. One of the chief advantages of being rich was that one need not be exposed to unforeseen contingencies; by the use of ordinary firmness and common sense one could make sure of doing exactly the same thing every day at the same hour … which he wore goloshes on damp days, his punctuality at meals, and his elaborate precautions against burglars and contagious diseases … All the people who came to the house revolved in the same small circle of prejudices. It was revolved in the same small circle of prejudices. It was the kind of society in which, after dinner, the ladies compared the exorbitant charges of their children's teachers,

24) Knights, Pamela. *The Cambridge Introduction to Edith Wharton*, Cambridge: Cambridge UP, 2009, p. 43.

> and agreed that, even with the new duties on French clothes, it was cheaper in the end to get everything from Worth; While the husbands, over their cigars, lamented municipal corruption, and decided that the men to start a reform were those who had no private interests at stake.[25]

리디아는 틸롯슨가의 문지방을 통해 처음으로 뉴욕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생활방식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으나, 가넷의 출현으로 인해 그러한 삶이 추하고 천한 것처럼 보이기 시작한다. 이렇게 시작된 두 사람의 떠돌이 생활은 사실 "범법자의 도피행각"[26]과 다름없다. 그들은 사회가 자신들의 관계를 인정하지 않을 것임을 잘 알고 있었기에 아는 사람을 줄곧 피해 왔다. 그러나 "자유가 그녀를 틸롯슨으로부터 해방시켜주었다기보다는 그녀를 가넷에게 넘겨준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27]는 리디아의 고백에서 드러나듯이, 진정한 자유는 불가능하다. 리디아는 숨조차 쉴 수 없었던 결혼제도로부터 도망쳐서 사랑하는 사람의 팔에 안겼지만, 그것은 또 다른 질식 상태의 연장일 뿐이다. 사실 두 사람의 사랑도피는 가넷에게 결혼을 하지 않았음에도 리디아를 책임져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끼게 한다. 이러한 가넷의 부담감은 이들에게 또 다른 우려를 제공하는 위험요소이다. 그리고 리디아도 그 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한계점이 예시하듯이 가넷과 리디아는 결국 자신들이 도망 나온 세계를 그대로 맞닥뜨리게 된다.

두 사람이 머물게 된 벨로스가도 호텔(Hotel Bellosguardo)은, "소문, 조작, 판에 박힌 일상, 계층, 사회적인 요구들, 감시 그리고

---

25) Wharton, Edith. "Souls Beleted," *Roman Fever and Other Stories*, NY: Scribner, 1997, p. 93. 이하 텍스트 인용은 각주에서 SB와 페이지를 병기함.

26) SB, p. 101.

27) SB, p. 92.

관습의 폭압"[28]이 소우주처럼 축소된 또 하나의 사교계였다. 나이츠는 "호텔의 장면에서 리디아와 가넷이 처한 상황은 그들이 뒤에 남기고 도망 온 것들이 그대로 재생산 되고 있는 것"[29]이라고 주장한다. 호텔에서 사람들의 시선이라는 외부적인 환경은 리디아의 깊은 내면의식을 드러내주는 매개역할을 한다. 사실 리디아는 자신이 버리고 온 관습의 틀을 온전히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녀는 휘황찬란한 호텔의 사교계층, 방문객 명단, 신분파악을 떠올리자 움츠러들었고, 이내 호텔 기록부에 가넷 부인의 이름으로 방을 잡아야 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저항의 의지가 약해지기에 충분했다. 급기야 가넷과 리디아처럼 똑같이 사랑의 도피행각을 벌이고 있는 린튼 부인(Mrs. Linton) 커플의 등장은, 자신들의 비밀이 탄로날까봐 두려워하는 리디아를 거의 공포로 몰아넣는다. 부정하고 싶지만 결국 린튼 부인과 리디아는 둘 다 같은 입장에 놓인 여성들인 것이다. 리디아가 린튼 부인과 연루되는 것을 꺼리고 자신들을 합법적인 부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거짓임이 드러날까 두려워하는 것은, 이혼한 남성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지만 이혼한 여성은 사회에서 버림받은 여성이라는 생각이 통용되는 관습의 틀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관습의 시선으로 본다면, 제도로서의 결혼을 거부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자유를 만끽하고 싶은 리디아의 행위는 그저 지탄받아야 할 '혼외정사'로 인식될 뿐이다.

리디아가 가넷을 떠나겠다고 결심한 마지막 장에서는 그녀가 사회의 견고한 구조와 관습 앞에서 무력하게 좌절되고 마는 한계점이 더욱 두드러진다. 리디아는 호텔생활에서 결혼제도의 구속을 거부하고 자유를 추구했던 자신의 이상이 이 사회에 존속하는 한 불가능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자 가넷을 떠나기로 결심한다.

---

28) Knights, op. cit., p. 44.
29) SB, p. 44.

그런 리디아를 보며, 자신들이 "정열이라는 강에 익사하면서, 서로에게 저항하면서도 서로에게 매달린 채 가라앉는 형국"이라는 가넷의 말은 리디아가 이미 정해진 굴레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한다. 리디아는 날이 밝자 가넷을 떠나기 위해 호텔을 나섰지만, 결국 배에 오르지 못하고 머뭇거리다가 가넷에게로 돌아서고 만 것이다. "그녀는 살아가는 데 너무도 복잡하고 비현실적인 것들을 추구했다. 아무도 그녀를 이해하지도, 동정하지도 않을 것"[30]이라는 가넷의 생각은 리디아가 추구한 자유의 이상이 당시 사회에서는 이해도 용납도 될 수 없는 비현실적인 것이라는 사회적 통념을 잘 보여주고 있다.

워튼은 경제활동에 해당하는 일을 하지 않는 삶은 자유의 이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가정 내의 역할로 한정된 여성에게 사회적 경제활동의 기회는 봉쇄되어 있다. 이는 결국 필연적으로 "불완전하게 억압된 것의 귀환"(the return of the imperfectly repressed, Bauer)[31]을 불러오게 된다. 사회적인 활동에서 제외된 여성에게 선택지는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유를 찾고자 시도했던 여성은 결국 그녀가 활동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인 가정 안으로 귀환되고 만다. 이러한 상황에서 리디아가 꿈꾸는 자유의 이상은 공허할 뿐이다. 그녀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 자신이 희망하는 일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일체의 견고한 질서"로부터 도망쳤지만, "결혼이라는 제도로 질식시켜버리는 가부장적 질서"[32]의 세계 속으로 다시 억압되어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워튼은 결혼이라는 제도 속에서 자신의 삶을 선택해야만

30) SB, p. 124.

31) Bauer, Dale M. *Edith Wharton's Brave New Politics*, Madison: U of Wisconsin P, 1994, p. 73.

32) 곽은희, 「틈새의 헤테로토피아, 만주」, 영남대학교 인문과학 연구소, 『인문연구』 제70호, 2014, p. 102.

했던 엘리스가 생존을 위해 그 제도 안에 적응할 수밖에 없었던 처지와, 리디아가 결혼제도의 관습을 거부하지만 결코 벗어날 수 없었던 상황을 통해 도저히 빠져 나오기 힘든 견고한 억압체계 속에 갇힌 여성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3. 관습에 도전하는 여성들

마거릿 맥도웰(Margaret B. McDowell)은 미국문학사에서 워튼만큼 "여성에 대한 통찰력 있는 연구"[33]를 수행한 이는 없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워튼은 여성들이 내적자아와 개인적인 자유를 찾지 못해 갈등하는 원인을 과도한 빅토리안 도덕과 함께 복잡하고 심히 결함이 있는 사회 구조 때문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워튼의 의식은 그녀를 "제도로서의 결혼에 대한 냉소적인 비판가"[34]로 만들었다. 당시의 여성에게 결혼은 경제적인 관점에서 꼭 필요하며, 유일한 선택이었기 때문이다. 데버러 럽턴(Deborah Lupton)은 "개인의 특성으로 보이는 것들이 사실상 개인의 특징이 아니라, 사회 문화적 규범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35]고 주장한다. 인간이란 사회적 관계의 총체이기에 자신이 처한 문화의 속박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또한 워튼이 오랜 기간 사회적 약자로 살아왔던 여성의 삶을 다루는데서 사회비평적인 요소에 민감할

33) McDowell, Margaret B. "Viewing the Custom of Her Country: Edith Wharton's Feminism", *Contemporary Literature* 15, 1974, p. 536.

34) Hoeller, Hildgard. "Competing Mothers: Edith Wharton's Late Vision of Family Life." In Andrea O' Reilly Herrera, Elizabeth Mahn Nollen & Sheila Reitl (Eds.), *Family Matters in the British and American Novel*, Foor: Bowling Green State U Popular P, 1997, p. 167.

35) 데버러 럽턴 지음, 김정선 옮김, 『의료문화의 사회학』, 한울 아카데미, 2009, p. 35.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워튼이 사회를 비판하는 방식은 그 사회가 규정한 관습의 틀을 깨고자 도전하는 여성 개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타난다. 워튼의 여성들은 생존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자 한편으로 굴레가 되기도 하는 결혼이라는 관습에 이혼 또는 결혼을 거부하는 모습으로 저항한다.

맥도웰은 워튼이 작가로서 50여 년의 기간에 걸쳐 "이혼"(divorce)과 "혼외정사"(extramarital affair)라는 두 개의 주제들에 천착해 온 것으로 진단한다. 사실 워튼의 거의 모든 소설은 이 두 가지 문제의 영역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그 속에서 워튼은 여성을 억압하는 관습법과 그 관습에 도전하는 여성들을 작품 속에 형상화함으로써 여성들이 처한 현실의 문제를 공적인 영역으로 끌어올리는 성과를 이룬다. 「나머지 둘」의 엘리스와, 「뒤늦은 연인들」의 리디아 역시 워튼의 이 두 가지 주제에 부합하는 인물들이다. 그녀들은 당시의 여성들에게 쉽지 않았던 이혼이나 혼외정사를 선택함으로써 사회적인 관습에 저항한다. 리디아가 실제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도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것과, 엘리스가 이혼을 거듭한 자신에게 보내는 사람들의 곱지 않는 시선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흔들림 없이 적응해 내는 능력은 사회가 규정한 관습적인 여성의 역할에 균열을 가하는 행동인 것이다.

「뒤늦은 연인들」에서 리디아는 결혼관습이 여성 개인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현대적인 의식을 깨우친 지적인 여성이다. 따라서 그녀는 관습의 세계에 속하는 남편을 떠나 사랑하는 가넷과 정착하는 결혼이 아니라 떠돌이 생활인 자유연애를 선택한다. 리디아는 다음과 같이 지적이며 논리적인 근거로 자유와 해방을 추구하면서 제도로서의 결혼 관습을 거부한다.

> … 그들 말대로 결혼은 그 자체로 신성한 것이고 개인은 가족을 위해 항상 희생당해야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결혼이라는 것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같이 있는 것 자체가 가족을 위해 개인도 희생해야 된다는 주장에 위배되는 것이니까요 … 물론 개인은 모든 보이지 않는 끈에 의해서 행동할 수도 있고, 또 해야 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적어도 사교적인 이익을 위해서 인간의 복잡한 심리적 동기를 무시하는 한 가지 사고방식에 묶여서는 안 되지요. 편협한 방법으로 사람을 구분하고, 자의적인 기호에 의해 사람을 구분하고, 틸롯슨 부인의 만찬 초대 명단에 끼기 위해서 아부를 한다는 건 도저히 용납이 안 되지요. 이 세상은 관습에 의해 통제될 필요가 있을지 모르지요. 그러면 그 관습이 옳다고 생각했다면 왜 우리가 그것을 어겼겠어요? 또한 그런 관습이 옳지 않다고 생각될 때 그것이 제공하는 보호를 이용하는 것은 정당한 일인가요?

… if marriage is sacred in itself and the individual must always be sacrificed to the family–then there can be no real marriage between us, since our–our being together is a protest against the sacrifice of the individual to the family … of course one acts as one can–as one must, perhaps–pulled by all sorts of invisible threads; but at least one needn't pretend, for social advantages, to subscribe to a creed that ignores the complexity of human motives–that classifies people by arbitrary signs, and puts it in everybody's reach to be on Mrs. Tillotson's visiting-list. It may be necessary that the world should be ruled by conventions–but if we believed in them, why did we break through them? And if we don't believe in them, is it honest to take advantage of the protection they afford? [36]

리디아는 결혼 그 자체를 신성한 것으로 보며, "결혼은 파기할 수 없는 것"[37]이라고 외곬으로만 생각하는 사회적 관념을 거부한다. 특히 결혼이 당시 관념에 따라 가족을 위해 여성 개인이 희생당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거부하겠다는 리디아의 논리는 '보이지

36) SB, p. 100.
37) SB, p. 99.

않는 끈'이란 사회적 관습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이다. 리디아가 보기에 그 세계는 기계적이고 획일적인 사고방식에 묶여 편협한 방식으로 사람을 구분하고 무리 짓는 관습의 고리가 인간본성의 복잡한 심리적인 동기들을 통제해 버리는 곳이다. 그것을 거부하는 리디아에게서, 남편인 "틸롯슨을 떠난다는 행위가 가져오는 '해방'이라는 대단한 특권에 비하면 이혼을 한다 혹은 하지 않는다의 작은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38]고 보는 자유추구 의지를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리디아의 자유 추구는 그녀와 결혼하기를 원하는 가넷에게 "새로운 윤리체계를 수립"하는 "사회학 강의"[39]를 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비춰진다. 가넷은 "인생이란 결국 타협"이라고 말하지만, 리디아에게 자신들이 버리고 온 관습의 세계로 다시 돌아가는 것, 즉 결혼이라는 제도 속으로 재편입한다는 것은 "경솔한 타협"[40]일 뿐이다.

그러나 가넷과의 떠돌이 생활 중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관습의 시선들은 리디아를 점차 표현할 수 없는 괴로움의 단계로 몰아간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리디아가 자신의 자유의지로 결혼과 이혼을 '선택'할 수 있는 지적인 여성이 아니라, 그저 "리디아의 남편이 그녀를 가넷에게 던져버린 것이나 다름없다"[41]고 보는 시선 때문이다. 리디아가 어떤 이유로 결혼을 거부하던지 간에 세상은 가넷과 함께 있기 위해 남편을 떠난 리디아를 가넷이 얼마나 빨리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서만 수군거리는 것이다. 급기야 리디아는 가넷을 자신이 해방되는 도구로 생각하지 않는가 하는 두려움에 휩싸이기 시작했고, 결국 가넷과 결혼하지 않겠다는 근본적인 생각을 지속시키는 일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불안감을

38) SB, p. 94.
39) SB, p. 100.
40) SB, p. 99.
41) SB, p. 94.

느낀다. 즉 사회적인 관습의 억압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는 현실의 한계를 체감한다.

더구나 전도유망한 작가인 가넷이 "언제까지 돌아다닐 수만은 없다"고 말했을 때, 리디아는 그가 자신을 만난 이후 글을 한 줄도 못썼다는 것을 상기하며 자책을 느낀다. 결혼을 거부하고 떠돌아다니고자 했던 리디아의 자유추구는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가넷 앞에서 무너지고 만다. 결국 "글을 쓰고 싶다면 물론 정착을 해야지요. 왜 바보같이 그런 생각이 안 떠올랐지! 어디에서 가장 능률이 생길 것 같아요?"[42]라는 말로 자신의 자유추구의 의지를 포기하기에 이른다. 마지막 장에서 리디아가 결국 가넷을 떠나지 못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부분에서도 "관습이 세상을 통제하는 한 개인은 그 보호를 활용해야 살아갈 수 있다"[43]는 가넷의 말처럼, 결코 사회의 틀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결국 「나머지 둘」의 엘리스처럼 그 관습의 보호를 탁월한 적응력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리디아는 결혼을 상징하는 가넷에게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리디아에 대해서 우리는 한 개인 여성이 자신의 자유로운 삶을 위해 관습이라는 거대한 틀을 깨고자 도전하지만, 끝내 한계에 부딪힌다는 결론을 낼 수 있을지 모른다. 그렇다면 이들을 '관습에 도전하는 여성'이라는 의미에서 해석할 수 있을 것인가? 소설이 만약 그 도전에 성공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면, 그것은 사회비판적인 스토리가 될 수 없다. 단지 개인의 이상을 실현하는 공상 소설일 따름이다. 워튼의 사회 비판적인 소설은 여성에 대한 현실의 구조와 문제점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독자에게 좀 더 강한 현실적인 공감을 이끌어 낸다. 중요한 것은 그 현실

42) SB, p. 97.
43) SB, p. 100.

안에서 깰 수 없는 관습에 끊임없이 저항하고 도전한 여성들의 시도라고 할 수 있다.

4. 억압된 여성의 위치 전복

지금까지 결혼과 이혼의 양상을 통해서 사회의 관습 아래 억압되어 있는 여성들의 현실을 살펴보았고, 이어서 그 관습에 도전하는 여성들의 면모가 비록 한계점에 부딪힌다 해도 독자에게 현실적인 공감을 일으킬 수 있는 사회비판적인 스토리라는 것을 주장했다. 그렇다면 본 장에서는 더 나아가 관습의 구조아래 적응할 수밖에 없는 여성이 '현실타협'이 아니라, 오히려 결정된 성역할의 위치를 전복시켜버리는 모습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뒤늦은 연인들」의 리디아의 경우, 사랑하는 가넷과 결혼이 아닌 떠돌이 생활을 선택함으로써 여성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관습에 도전하였다면, 「나머지 둘」에서 엘리스의 경우는 리디아가 결혼을 거부하고 관습에 도전했던 차원을 넘어, 관습이 규정한 여성의 위치를 완전히 전복시키는 능력을 발휘한다. 엘리스의 도전은 결혼제도라는 현실을 오히려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종국에는 관습이 요구하는 성 역할을 뒤집어버리는 발전된 형태로서 나타난다.

주변 사람들은 엘리스의 세 번째 남편이 되는 웨이손의 결혼을 두고 수군거린다. 두 번의 이혼을 거듭한 엘리스에 대해 도덕적인 잣대를 대는 것이다. 엘리스가 이러한 사회에서 관습에 도전하는 방식은 유연한 상황대처 능력과 노련한 적응력으로 드러난다. 엘리스는 당시 사회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혼을 두 번이나 거치며, 엘리스 해스킷(Alice Haskett), 엘리스 배릭(Alice Varick), 그리고 엘리스 웨이손(Alice Waythorn)의 이름을 차례로 가진다. 엘리스

의 반복된 이혼과 결혼은 물론 여성의 선택이 지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 결혼만이 생존을 위한 방편이었던 현실 때문이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시대적인 관념을 뛰어 넘는 놀라운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엘리스가 "스스로 정당화하는 능력이 대단하며,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모든 걸 잘 견디어 냈다"[44]는 웨이손의 말처럼, 주변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는 용기는 분명 수동적인 여성상으로만 볼 수 없는 까닭이다. 그녀가 두 번의 이혼과 재혼을 겪으면서도 한결같이 이름 속에 지키는 '엘리스'로서의 위상은 세상의 관습의 틀 안에서 나름대로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엘리스에 대해 웨이손은 그녀의 상황에 따른 능숙한 조절과 적응력만을 긍정적으로 생각했을 뿐, 이혼경력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았다. 그러나 웨이손은 엘리스의 딸 릴리의 아버지인 첫 번째 남편 해스킷이 아이를 보러 자신의 집으로 찾아오게 되는 불편함을 비롯하여, 사업적으로 우연히 엘리스의 두 번째 남편이었던 배릭을 만나게 되면서 점차 불만의 감정을 갖기 시작한다. 결정적으로 엘리스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커피에--두 번째 남편의 습관이었던--꼬냑을 넣는 모습, 그리고 전 남편들과의 만남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모습에서 그녀에 대한 웨이손의 판단은 달라지기 시작한다. 웨이손은 "첫 번째 남편을 받아들였으니 두 번째 남편도 받아들이겠다는 건가?"라는 생각과 함께 아내의 태도에 진저리를 친다. 급기야 웨이손은 엘리스를 "여러 명이 신어서 닳아 해진 오래된 신발"[45]에 비유한다. 웨이손이 엘리스에 대해 "오래된 신발처럼 편한 여자"라고 판단한 것은 순종적인 가정

---

44) Wharton, Edith. "The Other Two" *Roman Fever and Other Stories*, NY: Scribner, 1997, p. 61. 이하 텍스트인용은 각주에서 OT와 페이지를 병기함.

45) OT, p. 81.

의 천사로만 생각했던 엘리스의 유연한 상황대처 능력이 자신의 삶을 뒤흔드는 예기치 못한 힘을 발휘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엘리스가 야구장에서 두 번째 남편 배릭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웨이손이 화를 내자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곧 유순함과 적응능력을 발휘하여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할께요. 그 사람하고 부딪혔을 때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덜 어색할 것 같았어요"[46]라며 웨이손을 지휘함과 동시에 그 상황을 조절하는 차분함을 보인다. 웨이손은 엘리스의 이러한 능력을 보며 그녀가 마치 여러 개의 칼을 공중으로 던져 올렸다 잡는 "곡예사"(juggler)[47]같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칼들이 무뎌서 그녀 자신은 절대 다치지 않는다"[48]는 것이다. 그 뒤로 웨이손은 자신의 환상이 변하는 것을 감수할지라도 예민함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습관이 형성되었고 금전적인 면보다는 차라리 일상의 편안함을 더 중시하게 된다. 이것은 웨이손이 금전적인 면을 책임지는 남성의 역할에서 가정의 편안함을 중시하게 되는 여성의 역할로 전도되는 시발점이 된다. 웨이손은 엘리스의 능숙한 상황조절 능력에 길들여진 것이다. 여성성을 상징하는 모성애와 유순함이 오히려 남편을 전도 지휘함으로써 고정된 역할을 뒤집어 버리는 엘리스의 능력에 대하여 웨이손은 급기야 "이혼이라는 최신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she had discovered the solution of the newest social problem)[49]이라고 평가하기에 이른다.

> 그는 심지어 그런 기술을 습득할 기회가 없었던 한 여자를 온전히 차지하는 것보다 남자를 행복하게 할 줄 아는 아내를 3분의 1만

46) OT, p. 81.
47) OT, p. 82.
48) OT, p. 92.
49) OT, p. 81

차지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스스로에게 묻기도 하고, 그로 인해 얻는 이점들을 생각하기도 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은 기술이기 때문이다. 그런 기술은 여느 다른 것들처럼 양보와 배제와 꾸밈으로 형성되며, 적절하게 빛을 비추면 그림자를 능숙하게 줄일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의 아내는 그런 빛을 다루는 법을 정확하게 알았고, 그는 그녀가 어떤 훈련 덕에 그런 기술을 갖게 되었는지 정확히 알았다.

He even began to reckon up the advantages which accrued from it, to ask himself if it were not better to own a third of a wife himself if it were not better to own a third of a wife who knew how to make a man happy than a whole one who had lacked opportunity to acquire the art. For it was an art, and made up, like all others, of concessions, eliminations and embellishments; of lights judiciously thrown and shadows skilfully softened. His wife knew exactly how to manage the light, and he knew exactly to what training she owed her skill.[50]

엘리스의 탁월한 적응력은 결국 웨이손을 비롯한 전 남편들까지 자신의 손 안에서 지휘하는 역량을 발휘한다. 두 명의 전 남편과 웨이손까지 한자리에 모이게 된 당혹스러운 마지막 장면에서 남편들과 엘리스의 위치 전복은 더 극적으로 이루어진다.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세 명의 남편들과 마주하게 된 엘리스는 자신의 당혹스러움을 우아하게 장갑을 벗는 몸짓으로 덜어내며 이내 "오늘 오후는 정말 사랑스럽지 않나요?"[51]라는 말과 함께 편안함과 친밀감을 발산하는 매력적인 환대의 자세로 대응한다.

이 마지막 장면은 확실히 웨이손이 아닌 엘리스의 장이다. 웨이손과 전 남편들인 나머지 둘은 순진한 구경꾼으로 전락하며, 엘리

50) OT, p. 82.
51) OT, p. 86.

스는 "절묘한 솜씨의 연주자"이자 "영리한 무대 디자이너"[52]로서 군림한다. 세 명의 남편이 "여성에 대한 남성 연대"[53]의 연합체를 형성했지만, 마지막에 그 연합체를 지휘하고 통제하는 것은 이 소설의 화자인 웨이손이 아니라, 침묵했던 엘리스이다. 따라서 "이 스토리는 엘리스와 그녀의 남편들이 전통적으로 남성적, 여성적 역할을 거래함으로써 성적 특징을 반영한 위치를 교환한다"[54]고 본 제프리 하워드(Jeffrey Howard)의 주장은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엘리스는 아내의 위치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곤란할 수 있는 상황을 장악하고 남편들의 행동을 이끌어 내는 역할을 한다. 심지어 그녀는 티 테이블 옆에 놓인 낮은 의자에 앉아서 마치 그녀의 미소에 이끌리기라도 한 듯 다가오는 남편들에게 군림하듯 차를 나누어 주고 있다. 전 남편들에 이어 세 번째 찻잔을 '웃으면서' 받아드는 웨이손의 모습은 그가 결국 "수동적인 역할 즉 전통적인 여성의 위치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55]을 의미한다.

비록 엘리스가 현실을 살아가기 위해 세 번의 결혼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녀는 결코 초라하고 순종적인 여성이 아니다. 처음에 독자들은 엘리스를 남편에게 전적으로 맞춰가고 자신의 감정은 억제하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부드러운 미소로 곧 회복하는 순종적인 여성으로 볼 것이다. 그러나 엘리스가 강한 인물인 것은,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결국 그녀가 세 남자를 자신의 손 안에서 지휘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다. 워튼은 사회와 개인의 관계에서 결국 여성 개인이 사회 속에 편입되는 힘없는 존재

52) Inverso, Mary Beth, op. cit., p. 3.

53) Kiran-Raw, Meltem. "Edith Wharton's THE OTHER TWO", *The Explicator* 68-1, 2009, p. 39.

54) Howard, Jeffrey. "Trading Places in Domestic Spaces: Edith Wharton's THE OTHER TWO", *The Explicator* 71-3, 2013, p. 184.

55) ibid, p. 185.

로 그리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놀라운 방식으로 전복시키는 반전을 보여준다.

5. 나가는 말: 문학의 치유효과

워튼이 살았던 구 뉴욕 사회는 빅토리아 시대적 윤리관이 위세를 떨쳤던 때이다. 당시 여성에게는 공적인 영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남성에 비해, 사회적인 선택의 기회가 상당히 한정되어 있었다. 여성들은 가정 내에서 남성의 정서적인 면을 책임져야 하는 부속품에 지나지 않았으며, 개인적인 자유와 감정표현마저 허락되지 않았다. 따라서 여성이 선택할 수 있는 생존 수단은 오로지 결혼뿐이었다. 워튼은 이렇듯 불합리한 사회구조를 실제로 목도하고 체현한 작가로서 여성이 겪을 수밖에 없었던 불합리한 억압을 작품 속에서 구현해 낸다.

특히 사회의 관습에 저항하는 여성들의 시도라는 워튼의 전복적인 스토리 구성은 여성을 억압하는 관습과 대비되는 여성 개인의 삶을 말하는 데 있어서 극적인 효과를 낸다. 「뒤늦은 연인들」의 리디아는 제도적인 결혼을 거부함으로써 폐쇄적인 관습에 도전하며, 「나머지 둘」에서 앨리스는 결혼관습 제도를 오히려 본인에게 유리하도록 만들면서 역으로 활용한다. 이 두 인물의 삶의 형태는 당시에 도저히 상상하기도 어려운 행위였다는 점에서 놀랍다. 워튼의 글은 두 가지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나는 제도적인 관습이 여성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불합리성의 고발이며,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관습을 거부할 수 있는 놀라운 용기와 때로는 능숙하게 상황을 조절하는 노련함으로 여전히 자신의 가치를 찾고자 노력한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워튼 소설에서 주제적인 면은 관습적인 사회구조 속에 갈등하거나 희생되는 여성이지

만, 실제 소설을 이끄는 서사는 그 관습에 저항하고 자신의 삶을 개척하려는 여성들의 주체적인 의식과 도전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워튼의 글쓰기는 여성을 억압하는 사회구조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그녀 자신이 그리고 워튼의 글을 읽는 여성들이 억눌렸던 감정을 표출해 내고 새로운 인식에 도달할 수 있는 치유효과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Wharton, Edith. *Roman Fever and Other Stories*, New York: Scribner, 1997.

2. 논문

곽은희, 「틈새의 헤테로토피아, 만주」,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연구』, 70, 2014, pp. 83-108.

김유동, 「인문학, 치유, 그리고 우울」,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과학연구』 39, 2013, pp. 437-476.

손정희, 「플래퍼와 1920년대 미국 문화의 여성 이미지: 피츠제럴드 중심으로」, 한국아메리카학회, 『미국학논집』 41-2, 2009, pp. 133-159.

신동일, 손정희, 「영어영문학 교육과정의 확장을 위한 스토리텔링 연구분야의 유의미성 탐구」, 대한영어영문학회, 『영어영문학연구』 40-2, 2014, pp. 163-187.

이민용, 「이야기와 스토리텔링의 치유적 기능」, 한국독일언어문학회, 『독일언어문학』 43, 2009, pp. 225-242.

이봉희, 「글쓰기 치료: 소설 고쳐 쓰기를 통한 자아성찰 사례」, 한국국어교육학회, 『새국어교육』 80, 2008, pp. 339-360.

Emmert, Scott. "Drawing-Room Naturalism in Edith Wharton's Early Short Stories", *Journal of the Short Story in English* 39, 2002, pp. 57-71.

Howard, Jeffrey. “Trading Places in Domestic Spaces: Edith Wharton’s THE OTHE TWO”, *The Explicator* 71-3, 2013, pp. 184-187.
Inverso, Mary Beth. “Performing Women: Semiotic Promiscuity in “The Other Two””, *Edith Wharton Review* 10:1, 1993, pp. 3-6.
Kiran-Raw, Meltem. “Edith Wharton’s THE OTHER TWO”, *The Explicator* 68-1, 2009, pp. 39-42.
McDowell, Margaret B. “Viewing the Custom of Her Country: Edith Wharton’s Feminism”, *Contemporary Literature* 15, 1974, pp. 521-538.
Rossetti, Gina M. “Old Entanglements: Spectral Spouses in Edith Wharton’s “The Other Two” and “Pomegranate Seed””, *Journal of the Short Story in English* 58, 2012, pp. 189-200.
Whitehead, Sarah. “Breaking the Frame: How Edith Wharton’s Short Stories Subvert Their Magazine Context”, *European Journal of American Culture* 27-1, 2008, pp. 43-56.

3. 단행본

데버러 럽턴 지음, 김정선 옮김, 『의료문화의 사회학』, 한울 아카데미, 2009.
미셸 바렛 지음, 하수정 옮김, 『다시 보는 여성학』, 간디서원, 2005.
변학수 지음, 『문학치료』, 학지사, 2007.
사라 에번스 지음, 조지형 옮김, 『자유를 위한 희생』,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8.
Banta, Martha. “Wharton’s Women: In Fashion, In History, Out of Time.” In Carol J. Singley (Ed.) *A Historical Guide to Edith Wharton,* New York: Oxford UP, 2003, pp. 51-88.
Bauer, Dale M. *Edith Wharton’s Brave New Politics*, Madison: U of Wisconsin P, 1994.
Colquitt, Clare. “Bibliographic Essay: Visions and Revisions of Wharton.” In Carol J. Singley (Ed.) *A Historical Guide to Edith Wharton,* New York: Oxford UP, 2003, pp 249-262.
Hoeller, Hildgard. “Competing Mothers: Edith Wharton’s Late Vision of Family Life.” In Andrea O’ Reilly Herrera, Elizabeth Mahn Nollen & Sheila Reitl (Eds.), *Family Matters in the British and American Novel,* Foor: Bowling Green State U Popular P, 1997, pp. 167-182.

Hynes, Arleen McCarty and Hynes-Berry, Mary. *Biblio/Poetry Therapy: The Interactive Process: A Handbook,* St. Cloud, MN: North Star P of St. Cloud, 1994.

Knights, Pamela. *The Cambridge Introduction to Edith Wharton,* Cambridge: Cambridge UP, 2009.

Singley, Carol J. "Introduction." In Carol J. Singley (Ed.) A *Historical Guide to Edith Wharton,* Oxford: Oxford UP, 2003, pp. 3-17.

Wolff, Cynthia Griffin. *A Feast of Words: The Triumph of Edith Wharton,* second edition, Reading, Mass: Merloyd Lawrence Book, 1995.

[Abstract]

Repositioning Woman by Subversive Storytelling

- Healing Effects of Reading Wharton's "The Other Two" and "Souls Belated" -

Sohn, Jeong-Hee · Lee, Hyeon-Ju

Edith Wharton wrote to explore the socially prescribed woman's status in her time, and through her fictional work, attempted to provide a resolution to the problems embedded in woman's life. This paper examines how Wharton grapples with the issue of marriage institution by creating adaptive and resilient female characters in her short stories, "The Other Two" and "Souls Belated." In "Souls Belated," Lydia attempts to overcome social prejudices about the divorced woman by leaving with another man. In "The Other Two" Alice does not show any sense of defeat or frustration even after she has undergone two divorces and three marriages, but she rather manages to take effective advantage of the state of being married. Wharton's subversive storytelling in these stories serves to criticize the restrictions imposed on women by the marriage institution. Wharton's writing thus becomes a self-healing act to cope with her unhappy marriage life and the male-oriented social conventions, which opens a possibility of giving readers an opportunity to experience catharsis and problem-solving ability.

Key words: Edith Wharton, "The Other Two", "Souls Belated", Marriage, Divorce, Social Conventions, Subversive Storytelling, Healing

손정희
소속: 중앙대학교
주소: 동작구 흑석로 84 중앙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전화번호: 02-820-5095
전자우편: jhsohn@cau.ac.kr

이현주
소속: 중앙대학교
주소: 동작구 흑석로 84 중앙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전화번호: 02-820-5095
전자우편: kbin21@hanmail.net

이 논문은 2014년 11월 04일 투고하여
2014년 12월 10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4년 12월 15일 게재 확정함.